



**the chennai**  
Tamil Nadu Karnataka Kerala Andhra Pradesh

## [ 경제 및 산업 소식 ]

01. 인도정부, 5G 주파수 할당 계획 확정
02. 외환보유고 1주만에 46억불 감소
03. 루피화 가치 하락 지속
04. 인도 경제, 쌍둥이 적자 위험
05. 전자결제시 카드 정보 저장 금지, 9.30일로 연기
06. 신용카드 사용량 최고치 기록
07. 47차 GST 위원회 개최(6.28-29)
08. 인플레이션 동향
09. 22.6월 자동차 판매량, 25% 증가 전망

10. 세계은행, 인도 도로안전 개선에 2.5억불 규모의 차관 승인
11. 중앙정부, 개발 허브 설립 및 특별경제구역(SEZ) 개혁안 구상

## [ 기타 소식 ]

01. 코로나19 현황 및 방역 정책 관련 동향
02. 단기복무제(Agnipath) 파동

## 경제 및 산업 소식

### 01. 인도정부, 5G 주파수 할당 계획 확정

- 인도 내각은 5G 주파수 할당안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최종안에는 통신규제위원회 (Telecom Regulatory Authority)가 22.4월 기권고한 주파수 가격이 변동 없이 반영 되었다고 함.
- 통신사들은 그동안 2018년 인도 통신 당국이 정한 5G 주파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며 90% 할인안을 주장해왔으나, 22.4월 통신규제위원회는 2달간 검토한 끝에 이를 36% 할인한 가격으로 권고하였음.
- 금번 내각의 최종 승인에 따라 22.7월 말경 5G 72GHz 대역 주파수 할당 관련 경매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며, 총 경매액은 4.5조 루피에 이를 것이라고 함.
- 경매를 통해 5G 주파수를 확보한 통신사는 총 20년간 해당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금 역시 20년에 걸쳐 매년 상환하게 됨. 또한 10년 경과후 주파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는 남은 권리를 추가 비용 없이 반납할 수 있다고 함.
- 특히 금번 5G 주파수 할당안은 일반 기업이 5G 주파수를 할당받아 자체 5G 특화망(private captive network)을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금번 조치로 인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Industry 4.0등의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함.
- 반면, 통신사들은 일반 기업의 5G 특화망 구성을 허용하는 정부의 조치로 인해 통신사들의 수입이 40% 가까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반대하고 있음.

### 02. 외환보유고 1주만에 46억불 감소

- 외환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인도의 외환보유고가 6월 2주차에만 46억불 감소하여 현재 외환보유고는 총 5,960억불이라고 함.
-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간 루피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보유중인 미달러를 판매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22.2월 이후 외환보유고는 총 360억불이 감소하였음.
- 외환보유고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21.9월로 약 6420억 미불을 보유하였으며, 이는 인도 전체 14-15개월치 수입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으나, 현재 외환보유고

는 약 10개월치 물량에 못미친다고 함.



### 03. 루피화 가치하락 지속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인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흥시장의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도 루피화 역시 22년 이후 약 5% 평가절하되었음.
- 전문가들에 따르면 6월 말에는 루피화 가치가 1달러당 79루피까지 하락할 수 있고, 연말까지는 81루피가 될 수 있다고 함.
- 6.28(화)에는 1달러당 78.77루피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으며, 장중에는 한때 78.86루피까지 하락하였음.
- 인도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소모하여 루피화의 급속한 하락을 막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 상승 등 전세계적인 요인들에 의해 환율하락이 일어나는 만큼 중앙은행의 노력이 큰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하다고 함.

### 04. 인도 경제, 쌍둥이 적자 위험

- 인도 재무부 장관은 월간 경제 보고를 통해 생필품 가격 상승 및 보조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바, 인도경제가 향후 쌍둥이 적자 즉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심화

되는 메커니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언급함.

- 특히 디젤, 석유 관세 인하, 비료에 대한 보조금 정책 등 다양한 정부 재정지출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루피화가 악화되고 수입 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상수지 적자 역시 심화되어 적자 심화와 환율 상승이라는 악성 순환구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함.
- 다만 여타국에 비해 인도는 재정건전성이 높으며 정부의 안정화 노력 덕분에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적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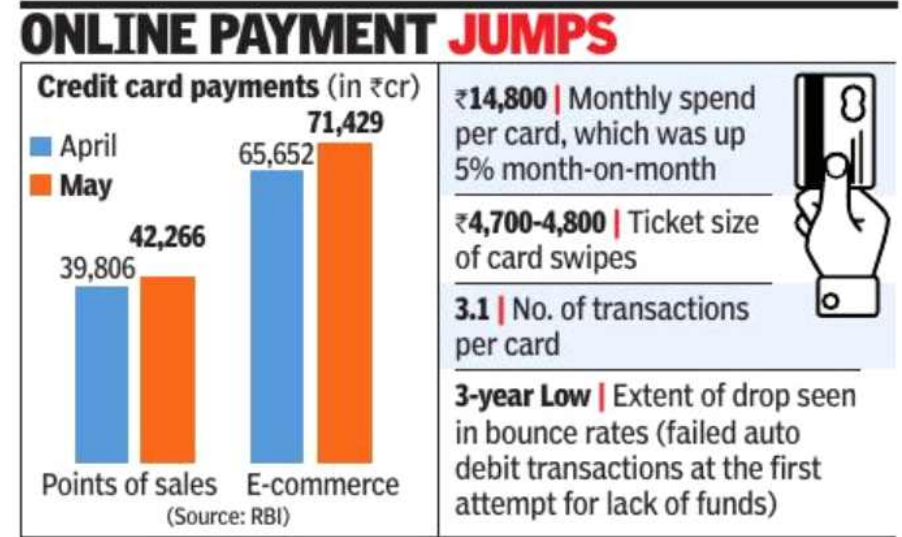
#### 05. 전자결제시 카드 정보 저장 금지안, 9.30(금)로 연기

- 인도 중앙은행은 당초 6.30(목) 이후 우버, 아마존 등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서 각 회사들이 고객의 카드 정보를 사전에 등록(Card-on-file)해놓는 것을 금지하는 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시행일을 9.30(금)으로 3개월 연기함.
- 동 안건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온라인 결제 시마다 새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의 번호를 새로 입력하여야 하거나 카드 정보를 암호화(Tokenisation)한 UPI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함.
- 중앙은행 관계자는 현재 카드 정보를 암호화한 서비스의 사용이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암호화 없이 결제 시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비회원 결제 방식(guest checkout transactions)의 경우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시행을 연기하기로 함.
- 카드 정보 저장 금지는 일부 온라인 결제 회사들이 자사에 저장된 고객의 카드번호를 누출하는 경우가 있는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카드 정보를 암호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사기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함.
- 한편 이에 대해 현재 “선결제 후지불(Buy now pay later, BNPL)” 방식으로 온라인 거래를 하고있는 8백만에서 천만에 이르는 소비자 및 업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06. 신용카드 사용량 최고치 기록

-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지난 22.5월 인도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1조1400억 루피로 전월(22.4월) 대비 8% 증가, 전년 동기(21.5월) 대비 118%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특히 IndusInd와 Kotak 은행이 전월 대비 17%와 15%로 최고 성장치를 보였으며, 최근 3년간 성장치를 보면, ICICI 은행이 48%, RBL 은행이 3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IndusInd는 28%였음. 이에 비해 Citi, Amex 등 외국계 은행은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저조하였음.
- 은행 전문가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소비의 주요 항목은 여행이었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되었던 여행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카드 소비액이 증가하였다고 함.
- 다만 최근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향후 카드 소비 성향 역시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 07. 47차 GST 위원회 개최(6.28-29)

- 6.28(화)-29(수) 양일간 찬디가르에서 제47차 GST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사업체, 조세기관, 정책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2017년 GST 출범 5주년을 기념하는 금번 GST 위원회에는 각주의 재무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몇몇 상품에 대한 GST 비율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함.
- 특히 관련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가죽제품, 프린트 잉크, LED 전등 등에 대해서 세

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함.

- 또한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카지노 등 기존 도박성 게임과 마찬가지로 28%의 GST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임. 온라인 게임 업계에서는 28%의 GST가 부과될 경우 현재 급성장중인 게임 산업에 큰 지장이 생길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 GST 출범 이후 GST 제도로 인해 각주의 세입이 감소될 경우 각 주의 재정 부족분을 타개하기 위해 5년간 각주에 주어지던 보상(Compensation Cess)이 22.6월 만료 예정임에 따라 이의 연장을 요구하는 주정부와 중앙정부간의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 카르나타카 주의 Basavarj Bommai 총리는 그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주 세입이 줄어듦, 경제 성장 역시 지체되고 있다고 하면서 GST 보상(Compensation Cess)의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08. 인플레이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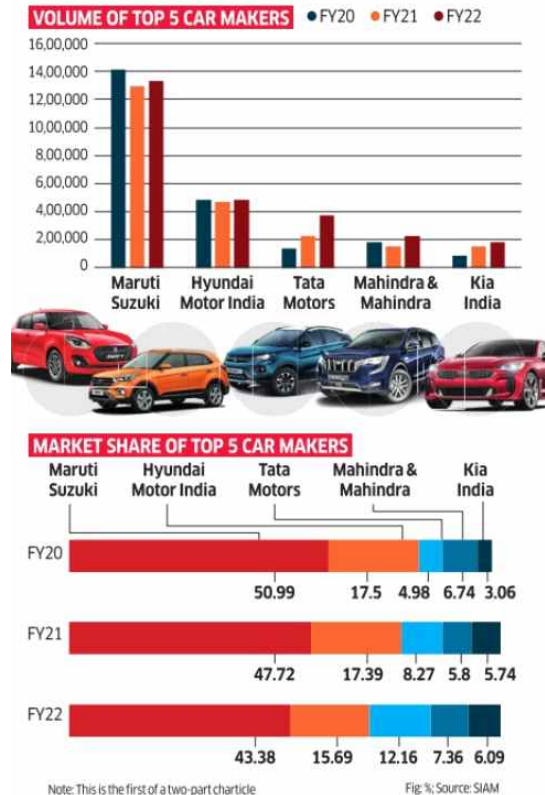
- Michael Patra 중앙은행 부총재는 인도 인플레이션 증가가 이미 정점에 달하고 있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억제책 역시 과격한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발언함.
- 또한 루피화 평가절하 역시 그 속도가 여타국에 비해 가장 느린 편이라고 하며, 중앙은행이 현재 급격한 환율상승을 방어하고 있다고 함.
- 이에 따라 향후 2년 안에 인플레이션을 원래 의도한 데로 4% 정도로 억제할 예정이라고 함.

## 09. 22.6월 자동차 판매량, 25% 증가 전망

- 자동차 부품 공급부족난이 다소 완화되면서 인도의 승용차 생산업체는 22.6월간 판매량이 최근 몇 년간 최고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함.
- 업계 전문가들은 22.6월 한달 동안 321,000대에서 325,000대의 차량이 공장에서 출고되어 매장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하며, 이는 작년 동기간 255,743대에 비해 25% 증가한 수치라고 함.
- 역대 가장 많은 월간 판매량은 20.10월 223,311대였으며, 그 다음은 22.3월 321,794대의 판매량이었음.
- 특히 마루티 스즈키 등의 제조사가 연례 정비를 위해 1주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도 만들어진 기록이라고 함.

- 기아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 공장들이 재가동되면서 부품난이 해소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동차 생산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함.
- TVS사는 22 회계연도에 100만대 판매를 기록하며 최고 이익을 거두었으며, 23년도에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밝힘. 다만 생필품 가격상승, 반도체 물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것이 불안 요소라고 함.
- ※ 현재 인도 자동차 시장은 마루티 스즈키, 현대, 타타, 마힌드라, 기아 등 5개사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며, 최근 인도인들의 차량 선호도가 해치백과 세단에서 SUV로 옮겨가면서, 타타자동차의 판매량이 늘어나 현대의 2위 자리를 추적중임.



## 10. 세계은행, 인도 도로안전 개선에 2.5억불 규모의 차관 승인

- 세계은행은 인도의 안드라프라데시, 구자라트, 오디샤, 타밀나두, 텔랑가나, 우타르프라데시, 웨스트벵갈 등 7개주의 도로안전을 위해 5.5년 거치 18년 기한의 2.5억불 규모의 차관을 승인함.
- 동 차관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통해 조달되며 상기 7개주에서 교통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더 안전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투입될 예정임.

## 11. 중앙정부, 개발 허브 설립 및 특별경제구역(SEZ) 개혁안 구상

- 중앙정부는 DESH(Development Enterprise and Services Hubs) 법안을 곧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바, 동 법안은 각 주에 투자, 수출 등 경제활동을 강화할수 있는 개발 허브를 설립하려는 내용이라고 함.
- 특히 이러한 개발 허브에는 기존에 설립된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이 포함될 예정이라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SEZ 관련 법안이 동 법안으로 대체 되어, SEZ의 재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또한 SEZ가 기존의 수출 중심의 제조 허브였던 것에 비해 향후 국내 산업활동을 위한 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함.
- 중앙 정부는 또한 각 주 및 연방직할지에 관련 지역 위원회(Regional Board)를 설립할 예정인 바 중앙정부 및 주정부 뿐만 아니라 각 제조업체들 역시 지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조 허브 설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함.

## 기타 소식

### 01. 코로나19 현황 및 방역 정책 관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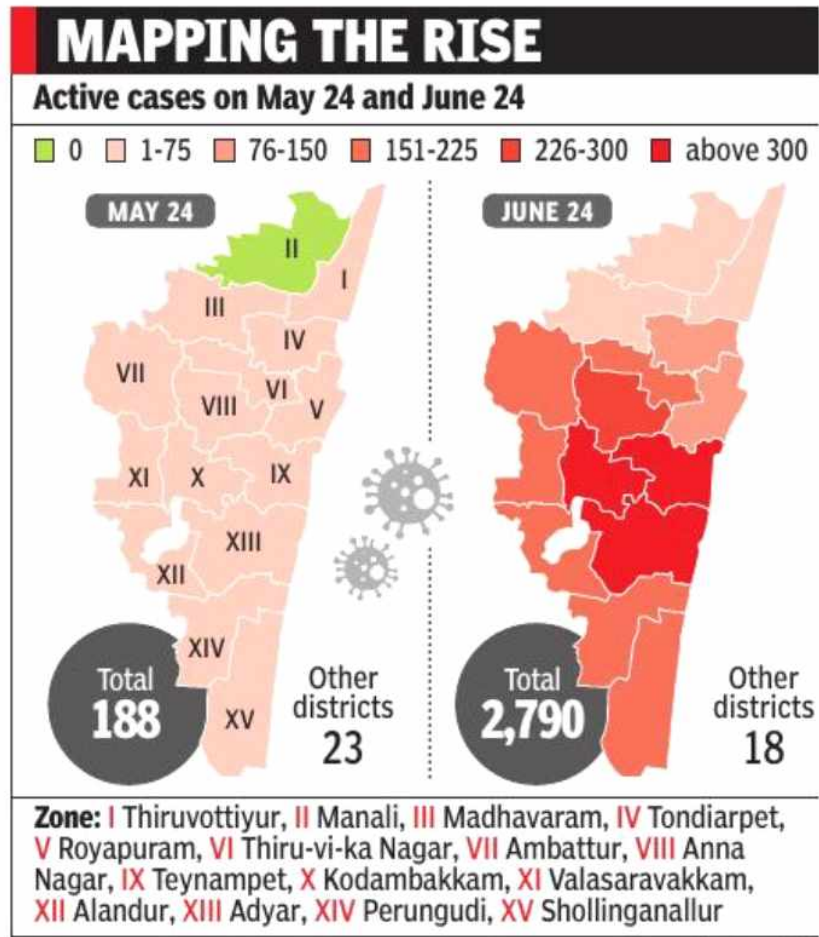
#### 코로나19 현황/전망

- Subaramanian 타밀나두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5.24(화) 첸나이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88명이었으나, 6.24(금)에는 2,790명으로 거의 15배 이상 늘어났다고 함. 또한 첸나이 시의 구역별로 보아도 전 구역에서 골고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 특히 각 구역별 확진자수를 보면 1개월만에 확진자수가 26배 증가한 코담바캄(Kodambakkam)지역의 확산세가 가장 크다고 함.
- 현재 확진자의 92%는 자가 격리중이며, 입원중인 나머지 확진자들도 기침, 발열 등 가벼운 증세를 2-3일 보일 뿐이고, 집중치료실(ICU)이나 산소 공급이 필요한 환자는 없다고 함.
-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각 주간 이동, 각종 모임 참석 등 일상생활 회복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보건부는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및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유증상자의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함.

#### 방역정책

- 현재 첸나이 시에 2차 접종을 받지 않은 인구는 120만 여명에 달하며, 보건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에는 3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
- 크리스찬 의대(Christian Medical College)의 연구에 따르면 코비쉴드(Covishield)나 코백신(Covaxin)으로 1차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코비쉴드로 2차접종 및 부스터 샷을 맞는 경우 효과가 현저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 02. 단기복무제(Agnipath) 도입 파동

- 인도정부가 6.14(화) 새로운 단기 군복무제도(Agnipath 제도)를 발표하면서 각 지역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 동 제도에 따르면 22.9월 이후 입대하는 하위 계급의 군인들은 단 4년만 복무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연금 수령 역시 제한되게 됨.
- 인도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 특히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군복무가 공직수행 및 퇴직후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한 인기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대해 INC 등 야당은 Agnipath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군대내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입대하여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군인과 Agnipath 제도로 입대하여 단기복무를 하게 되는 군인으로 구별되어 군내에 차별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음.
- Agnipath 제도 이전 인도의 군복무는 15년 이상 복무시 평생연금을 받는 제도로 2019년 이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병이 중단된 상황임.

